

#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유기체적 도시 및 도시계획론\*

김 나 영\*\*

nykim@kmou.ac.kr

## 〈 目 次 〉

- |                       |                   |
|-----------------------|-------------------|
| 1. 서론                 | 3.1 '생물학적 원칙'과 자치 |
| 2. 일본 근대도시계획사와 고토 신페이 | 3.2 인프라 중심적 사고    |
| 3. 고토 신페이의 도시 및 도시계획론 | 4. 결론             |

Key word : 고토 신페이(Goto Shinpei), 일본 근대도시(Japanese Modern City), 도시계획(Urban Planning), 유기체적 도시론(Notion of City as an Organism), 식민주의(Colonialism)

## 1. 서론

일본의 근대도시사 연구는 제국 일본 하에서 식민지도시로서 근대도시로의 전환을 겪은 한국 근대도시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럼에도 한국의 도시사 및 도시연구 분야에서 일본 근대도시에 대한 접근의 축적은 아주 미진한 상태에 있다. 최근 제국 일본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 근대도시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국 일본의 식민지도시에 대한 연구에 필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1) 김백영(2006), 「식민지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공간사회학적 문제설정」 『사회와 역사』 72, pp.186-194 참조.

적임을 인정하며 일본 근대도시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아직 이들 연구는 근본적으로 식민지도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별 도시에 대한 사례연구의 축적에 머물고 있다.<sup>2)</sup> 제국 시기 일본의 근대도시 형성에 대한 이해가 식민지도시 연구의 전제라면, 기본적으로 일본 근대도시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서도 개별사례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점에서 일본의 근대도시 형성과정을 보다 전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먼저 일본 근대도시 형성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 즉 근대도시의 형성과정은, 근대 이전의 도시들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형성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의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sup>3)</sup> 전통 도시를 전면적으로 개조한 것이든, 도시가 없던 곳에 새로이 도시를 만든 것이든, 근대도시는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형성된 측면이 강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도시에 대한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가 근대 도시계획이 될 것이고, 이 도시계획은 인간이 당대 도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이 의도하는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상되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근대도시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에는 그 형성과정을 주도한 사람의 생각과 구상, 실천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 2) 김백영(2006),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일본 근대 도시 형성과정의 이중적 경향」, 『일본연구논총』 23, pp.407-449; 김백영(2009), 「천황제제국의 팽창과 일본적 근대의 기획: 일본형 식민지도시의 특성에 대한 비교사적 분석」,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창간호, pp.43-79; 박진한(2011), 「1920·30년대 일본의 도시계획론과 도시계획사업 -‘오사카’와 ‘세키 하지메’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4, pp.159-191; 박진한 외(2013),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제국일본의 근대도시 형성기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명규(1996), 「일본 도시계획의 아버지: 이케다 히로시」, 『국토』 173, pp.90-97; 이명규(1997), 「일본의 동경시구개정조례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 9, pp.173-190; 최철호(2002),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18, pp.165-180.
- 3) 김철수(2005), 『도시계획사』, 기문당, pp.13-24.
- 4) 근대도시계획은 강력한 공적 개입을 통해 도시의 물적 개발 전체를 계획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술로서 나타났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2), 『서양도시계획사』, pp.231-232; 鈴木信太郎(2007), 김영훈 옮김, 『도시계획의 조류』, p.12; 永松榮(2008), 『都市と建築の近代』, 學藝出版社, pp.13-23.

제국 시기 일본의 근대도시 형성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많은 이들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을 비롯하여, 일본 도시 계획의 “세 개척자”<sup>5)</sup>로 불리는 이케다 히로시(池田宏), 세키 하지메(關一), 가타오카 야스시(片岡安) 같은 이들이 그들이다. 이중에서도 고토 신페이(1857-1929년)는 “일본 도시계획의 아버지”라 불리며 오늘날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의 기본 틀을 놓았다고 여겨진다.<sup>6)</sup> 특히 고토는 1923년 9월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이 발생했을 때 도쿄시장으로 있었고 지진 발생 이후 구성된 제2차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내각에서 내무장관 겸 제도부흥원(帝都復興院) 총재로서 ‘제도부흥계획(帝都復興計畫)’을 입안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토 신페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동대지진 후의 제도부흥계획과 관련해서 이루어졌거나, 고토가 대만(臺灣)과 만주의 식민지 경영의 주역 중 한 명이란 점에서 제국 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관련해서 수행되었다.<sup>7)</sup> 본고에서는 일본 근대도시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중요 인물로 고토 신페이의 도시 및 도시계획론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근대도시에 대한 이해에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sup>8)</sup>

- 
- 5) 渡辺俊一(1993), 『「都市計畫」の誕生 -國際比較からみた日本近代都市計畫』, 柏書房, p.18.
- 6) “고토는 도시계획의 아버지이고 도쿄를 조성한 대인(大恩人)이다.” 越澤明(2011), 『後藤新平』, 筑麻書房, p.15.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2010), 『後藤新平とは何か-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藤原書店, pp.13-19의 ‘序: 日本近代都市計畫の父’, 참조.
- 7) 고토 신페이는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관동대지진 이후의 제도부흥계획에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편으로 제국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박삼현(2013), 『도쿄의 ‘제도(帝都)’ 부흥계획과 고토 신페이』, 박진한 외,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pp.24-51; 持田信樹, 『後藤新平と復興事業 -‘慢性不況’下の都市スベンディング』, 『社会科学研究』, 35-2 (1983), pp.1-60; 越澤明(2007), 『後藤新平と東京都市計畫』, 『2007年都市問題公開講座ブックレット 11』, pp.6-41; 渡辺利夫, 『後藤新平の臺灣開發 -日本の‘開發學’の原點』,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RIM』 29-8 (2008), pp.1-5; 神山睦美, 『近代をどう超えるか -後藤新平の臺灣統治を手がかりに』, 『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年報』 5 (2007-2008), pp.16; 五十嵐卓, 『滿洲經營機關問題と後藤新平 -滿鐵總裁時代を中心に』, 『學習院史學』 24 (1986), pp.24-39.
- 8)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 이후 고토 신페이는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일종의 유행처럼 관동대지진 이후 도쿄를 ‘부흥’시킨 고토와 관련한 여러 전기들이 출간되고 관련서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얼마간은 일방적인

## 2. 일본 근대도시계획사와 고토 신페이

일본 근대도시 형성의 역사는 미해군 제독 페리의 일본 개항으로부터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피하면서 도시 역시 서구의 선진적인 근대도시에 비견되는 새로운 근대도시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서구의 선진 문명에 뒤지지 않음을 과시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 근대도시의 형성은 서구의 근대도시를 모방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도시 형태를 변용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9)</sup> 이런 과정은 외형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도시를 서구의 근대적 기준에서 변형시키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근대적 도시계획의 전개과정에 다름 아니었다.<sup>10)</sup> 따라서 일본의 근대도시계획사를 살피는 것이 일본 근대도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것과 고토 신페이의 관계를 보는 것은 고토의 도시 및 도시계획론을 이해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메이지 유신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도시계획의 전개과정은, 도시계획사가 이시다 요리후사(石田頼房)의 견해를 빌리면, ① 서구화 도시개조기(1868-1887년), ② 시구개정(市區改正)기(1880-1918년), ③ 도시계획제도 확립기(1910-1935년), ④ 전시하 도시계획기(1931-1945년), ⑤ 전후 부흥도시계획기(1945-1954년), ⑥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도시개발기(1955-1968년), ⑦ 신기본법기(1968-1985년), ⑧ 반(反)계획·버블경제기, ⑨ 주민주체·지방분권의 도시계획을 향하여(1992년-)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이중 근대도시 형성과 관련한

찬양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山岡淳一郎(2007), 『後藤新平 日本の羅針盤となった男』, 草思社, 渡辺利夫·奥田進一 編(2011), 『後藤新平の發想力』, 成文堂. 한편 고토 신페이 관련 서적에 가장 열심인 것은 藤原書店인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8권으로 된 『決定版 正伝・後藤新平』를 출간했으며, <シリーズ後藤新平とは何か>라는 이름 아래 고토의 글과 관련 학자들의 글을 모아 책을 내고 있다. 이 시리즈로 나온 『後藤新平とは何か-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는 고토의 도시론 및 도시계획사상 전체에 진지하게 접근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 실린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계획 및 건축사 전공 학자들의 글들도 고토의 도시론 및 도시계획관이 가진 선진적 요소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그것을 당시의 시대적 맥락 하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데는 미진한 감이 있다.

9) 김백영,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pp.407-449.

10) André Sorensen(2002), *The Making of Urban Japan*, Routledge, pp.6-7.

11) 石田頼房(2004), 『日本近現代都市計畵の展開 1868-2003』, 自治體研究社, pp.2-6.

근대도시계획 형성기는 ①~③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잘 알려진 1872년에 시작된 긴자 벽돌거리(銀座煉瓦街) 조성, 1885년부터 시작된 히비야(日比谷) 관청집중계획, 1888년에 시작된 일본 최초의 도시계획이라 일컫는 도쿄 시구개정사업이 진행되었고,<sup>12)</sup> 1919년 일본 최초의 근대도시계획법인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이 제정되었다.<sup>13)</sup> 또한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당시까지의 도시계획 사상과 기법을 총동원한 ‘진재부흥계획’이 시행되었다.<sup>14)</sup>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상의 도시계획 형성 시기는 고토 신페이(高橋新平)의 생애와 완전히 겹쳐 있다. 1857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난 고토는 1929년 강연 여행 중 73세로 사망했는데, 그의 생애 전체가 일본의 근대국가로의 전환과 근대도시 형성기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19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그 경위, 그리고 1923년 이후의 진재부흥계획 및 사업은 그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고토는 도호쿠 지방의 몰락한 중급무사 집안 출신이었으나 소년 인재로 발탁되어 당시로서는 가장 서구적인 직업인 의사로서 훈련을 받았다.<sup>15)</sup> 그 후 26세에 내무성의 위생관료로 발탁되고 1890-1891년에는 독일에 유학한 뒤 35세의 나이에 내무성 위생국장이 되었다.<sup>16)</sup>

이후 고토의 일생은 거의 도시행정과 도시계획과 관련한 실천과 입법활동의 연속이었다. 고토는 1896년 대만총독부의 제2인자인 민정국장으로 취임하여 대만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만이 아니라 식민지 경영 전체(산업개발, 아편 대책 등)를 주도하였으며, 1906년 만철(滿鐵) 초대 총재로 취임하여 대련(大連) 봉천(奉天), 장춘(長春) 같은 여러 도시의 개발과 도시계획을 시행하였다. 식민지경영에서 보여준 탁월함을 인정받은 고토는 1908년 제2차 가즈라(桂) 내각에 체신성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유력 정치가로 성장하게 된다.<sup>17)</sup>

12) 이상의 내용은 藤森照信(2004), 『明治の東京計画』, 岩波書店 참조.

13) 渡辺俊一(1993), 앞의 책, pp.101- 165.

14) 羽貝正美, 『震災復興と都市空間の近代化 -震災復興土地畫整理を手がかりに』, 『都市問題』 98 (2007), pp.53-63.

15) 고토의 어린시절과 출신배경 그리고 의사로서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越澤明, 앞의 책, pp.26-46 참조.

16) 御厨貴編(2007), 『後藤新平大全』, 藤原書店, pp.90-96.

그 후 1916년 테라우치(寺內) 내각에서 내무성 장관 및 철도원 초대총재가 된 고토는 이때부터 진정한 근대적 도시계획법의 제정에 진력한다. 그는 1917년 뜻을 같이하는 여러 관료 및 학자들과 함께 도시연구회(都市研究會)를 만들고, 자신이 초대 회장이 되어 도시계획법 제정을 위한 선전활동과 청원운동을 주도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1919년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이 마침내 제정되어, 일본의 근대도시계획이 완성된다.<sup>18)</sup>

이후 1920년 도쿄시장이 된 고토는 1921년 유명한 「도쿄시정요강(東京市政要綱)」을 발표하여 도쿄의 대개조를 위해 7억 5750만 엔이 필요하다는 소위 ‘8억 엔 계획’을 발표하였고,<sup>19)</sup> 특히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시정조사를 채택하여 미국의 시정 전문가 찰스 비어드(Charles Beard)를 초빙하여 도시문제와 도시계획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sup>20)</sup> 그리고 1923년 도쿄 시장 재임 중 관동대지진을 맞고 바로 결성된 아마모토(山本) 내각에 내무성 장관으로 들어간 고토는 내각에 들어간지 5일만인 9월 6일 「제도부흥안(帝都復興の議)」<sup>21)</sup>을 의회에 제출하여 단순한 진재로부터의 ‘복구’가 아니라 ‘제국의 수도’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창조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도시계획안을 제창하였다. 당초 제시된 41억 엔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5억 7500만 엔의 예산을 제안했지만, 결국 제도부흥심의회에서 크게 삭감되고 말았다.<sup>22)</sup> 그리고 아마모토 내각이 1923년 12월 총사퇴하면서

17) 고시자와 아키라(2006), 장준호 편역 『도쿄 도시계획 담론』, 구미서관, pp.2-3.

18) 도시연구회에는 서론에서 얘기한 세 개척자, 즉 이케다, 세키, 카타오카 외에 근대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참여했고, 이들 모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시계획법 제정을 추동해 내었다. 渡辺俊一, 앞의 책, pp.115-133.

19) 越澤明, 앞의 책, pp.194-195. 「東京市政要綱」은 1921년 5월 1일 도쿄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공업구락부(日本工業俱樂部)에서 행한 연설인데, 도시연구회가 간행한 월간지인 『都市公論』, 4-6, 1921년에 실렸다. 전문이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p.191-200에 재수록되어 있다. 8억 엔은 당시 도쿄의 1년 예산이 1억 엔이 좀 넘었고 일본 국가예산이 15억 엔 정도였던 시기에 터무니없는 액수로 놀림을 받았다.

20) 渡辺俊一, 앞의 책, pp.219-224.

21) 이것은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p.207-211에 재수록되어 있다.

22) 고토가 8억 엔 계획에 이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연이어 제시하자, 이때부터 ‘과대포장(大風呂敷)’을 하는 사람으로 놀림을 받았다. 越澤明, 앞의 책, p.19.

고토도 사직하여 결국 제도부흥의 실행과정은 후임자와 그를 따르던 관료들의 몫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1929년까지 고토는 도쿄시정조사회(東京市政調査會) 활동을 통해 도쿄의 진재부흥과정을 돕고 나아가 전국을 돌며 도시계획과 도시행정 및 위생행정에 대한 강연을 하며 말년을 보내었다.<sup>23)</sup>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고토의 이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고토가 받은 서구 도시계획의 영향이다. 고토는 1883년 내무성 관료가 되면서 히비야 관청집중계획과 도쿄 시구개정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다. 이 두 개의 일본의 초기 도시계획은 서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사업으로 히비야 관청집중계획의 경우 독일인 빌헬름 뷁크만(W. Böckmann), 헤르만 엔데(Hermann Ende), J. 홉레히트(Hobrecht) 같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직접 참여하였다.<sup>24)</sup> 도쿄 시구개정사업의 경우는 1860년대의 파리대개조 사업을 본떠 도쿄를 개조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파리대개조와 관련한 여러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5)</sup> 특히 고토가 영향을 받은 것은 뷁크만에 의한 바로크풍 도시계획으로 이것은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조성수법을 기원으로 하여 오스만(Haussmann)의 파리대개조에 반영된 것이다. 그는 뷁크만의 관청집중계획 안에서 본 바로크적 도시계획을 대만의 대북(臺北)의 시구계획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sup>26)</sup> 뿐만 아니라 고토는 뷁크만의 계획이 파리대개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뷁크만과 홉레히트의 안들을 절충해서 시행한 대만 시구계획의 과정에서 3차선 도로의 건설을 집행하면서 이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상젤리제와 같은” 모양으로 건설하라고 지시한다.<sup>27)</sup>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가 1890년 유학을 떠날 때 대상지를 독일로 선택한

23) 고토 신페이와 제도부흥계획에 대한 내용은 위의 주 7)에 수록된 문헌을 참조하고, 보다 간단한 정리로는 고시자와 아키라, 위의 책, pp.7-14를 참조. 이 과정을 일본 정계 내의 정치적 대립과 당시의 국가관들의 충돌로서 해석하는 것은, 박삼현, 위의 논문, 참조.

24) 藤森照信, 앞의 책, pp.286-311.

25) 石田頼房, 앞의 책, pp.50-52.

26) 田中重光, 『後藤新平の臺灣ランドスケープ・デザイン』,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75.

27) 위의 논문, p.89. 대만의 3차선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王惠君·三村悟(2010), 『圖說 臺灣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pp.23-24 참조.

것이 이해될 만하다. 그는 1890년에서 1891년 독일에서 위생공학과 세균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1892년 의학박사학위를 따서 귀국했다. 이 시기의 독일은 서구 근대도시계획의 최선두를 지키고 있던 도시계획의 선진국 중 하나였다. 독일은 이미 1875년에 건축선(建築線) 개념을 도입하여 법제화하였고 1902년에는 일종의 공공용지 수용법안인 아딕케스법(Adickes) 법을 시행하여 토지구획정리에 있어 공적 용도를 위한 사적 소유권의 일정한 규제라는 근대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을 실현하고 있었다.<sup>28)</sup> 이런 곳에 유학을 간 고토가 독일의 도시계획을 눈여겨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고토는 대만총독부 민정국장으로 있던 1902년 7개월간 그리고 1918년 테라우치 내각이 총사퇴한 뒤 1919년 8개월간 미국과 유럽의 주요도시를 돌며 서구의 선진 도시계획을 직접 목격한다. 특히 두 번째 외유에서는 뉴욕에 들러 당시 활발하던 시정조사 활동을 직접 목격하고 나중에 비어드를 초빙하여 도쿄 시정조사 활동에 접목시킨다.<sup>29)</sup>

무엇보다 고토가 가장 친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이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하수도 설비 및 위생 전문가 버튼(W.K. Burton)이었다. 버튼은 “일본의 상하수도·위생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1887년 일본 정부의 초빙으로 들어와 고토와 일본의 위생 및 하수도 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갖가지 위생 정책을 입안하였다. 더욱이 그는 1896년 고토의 추천으로 대만으로 넘어가 대만의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및 근대적인 위생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sup>30)</sup>

이러한 여러 경험들이 그가 가진 도시론 및 도시계획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그가 직접 계획하고 제시한 ‘8억 엔 계획’이나 제도부흥계획 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일본의 근대도시계획의 역사와 고토의 이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고토의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고토는 도시계획관이 아니라, 도시 위생, 도시행정, 자치 및 지방분권, 식민지 경영 등과 관련해서 수많은 글들을 남겼

28) H. Matzerath(1984), “Berlin, 1890-1940”, A. Sutcliffe (ed.), *Metropolis, 1890-1940*, London: Mansell, pp.289-318.

29) 御廚貴編, 『後藤新平大全』, pp.270-272.

30) 宝月理恵(2010), 『近代日本における衛生の展開と受容』, 東信堂, pp.84-89; 黃文雄(2001), 『後藤新平による臺灣近代化のための醫療教育觀』, 『拓植大學百年史研究』 6, pp.50-51.



지만, 그의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글은 1921년 『도시공론(都市公論)』에 실은 「도시계획과 자치의 정신(都市計畫と自治の情神)」일 것이다.<sup>31)</sup> 아래에서는 이 글과 다른 주요 도시계획 관련 글을 중심으로 고토의 도시 및 도시계획관을 살펴볼 것이다.

### 3. 고토 신페이의 도시 및 도시계획론

#### 3.1 생물학적 원칙과 자치

고토 신페이의 도시론은 ‘생물학적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한다. 이런 고토의 도시론은 당시의 근대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상이 효율성에 집착하고 획일성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보면 아주 독창적인 것이었고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대상이 된다. 고토 스스로가 제시하는 생물학적 원칙은 이러하다.

최근에는 과학의 진보에 의한 도시계획이 실행되는 것처럼 되었지만, 과학의 진보 그 자체가 차츰 변하고 있다. 종래 과학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어서 분명 물질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심리상태에 관한 과학이 진보함과 동시에 완전히 영혼과 피가 일체일여(靈血一體一如)가 아니면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완전하며 원만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과학적인 시설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행한다고 하는 이상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생물학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32)</sup>

여기서 고토는 과학이 물질만 중시하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정신적, 심리적 요소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학에 기초한다는 도시계획도 정신적, 심리적 요소, 즉 인간 중심적인 요소들을 중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는 “도시는 민중(民衆)이 모여사는 곳이고 … 민중과

31) 後藤新平(1921), 「都市計畫と自治の情神」, 『都市公論』 12-4,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p.151-187.

32) 後藤新平, 「都市計畫と自治の情神」, p.154.

분리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사람을 떼고는 도시가 아니다”고 한다.<sup>33)</sup> 그리고 이 생물학적 원칙에서 자치의 개념이 나온다. 그는 “자치는 생물의 본능이고 인류의 본능이다”고 하며, 영어에서 자치를 번역했다고 일본인의 본능 속에 자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34)</sup> 이것은 모든 생물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데 다른 생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그런 수단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衛生) 집단을 만들고 사회를 이룬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자치의 능력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도시계획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런 본능에 입각하여 인간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고토의 생물학적 원칙과 자치에 입각한 도시론은 근대 도시계획이 형성되는 20세기 초의 시점에서는 아주 특이한 것이며,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를 ‘인간 중심의 도시론’과 ‘지역자치론에 근거한 도시론’이라고 요약한다.<sup>35)</sup> 분명 의사로서 출발한 고토가 자연 생물의 존재방식에 근거해 생물학적 원칙에 입각해 도시론을 지녔고 이를 근거로 독특한 도시계획과 정책을 제시했음은 분명한 듯하다. 그는 이런 원칙을 이미 대만의 식민지 경영에서 사용하여 대만의 고유한 전통적 관습을 조사하고 인정하면서 원주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형태의 도시계획과 실행을 추구하였다고 인정받고 있다.<sup>36)</sup> 이는 만철 경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후에 도쿄의 도시개조를 피한 ‘8억 엔 계획’과 제도부흥계획에서도 지역민의 전통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도시 개조와 계획을 주장하였다.<sup>37)</sup>

이런 고토의 도시론은,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나타나는 근대도시의 획일성과 단조로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도시론을 추구하는, 특히 유기체적 도시

33) 위의 글, p.152.

34) 위의 글, p.155.

35) 青山尙, 『後藤新平の都市論 - 四つの視點』,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p.37-47; 鈴木文晃, 『都市計畫法』, 渡辺利夫・奥田進一 編, 『後藤新平の發想力』, pp.24-25.

36) 春山明哲(200\*), 『近代日本と台湾: 霧社事件・植民地統治政策の研究』, 藤原書店, pp.333-335.

37) 後藤新平, 『東京市政要綱』, pp.192-193; 後藤新平(1924), 『帝都復興とは何ぞや』,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p.222-223.

의 가능성을 찾는 현대의 도시론과 통하는 바가 있고 특히 도시를 전체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유기체적 도시론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생물학적 원칙에 입각한 도시론 및 도시계획사상은 여러 가지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의사로서의 경력에서 생물학적 원칙이 출발했기에 그의 생물학적 원칙이란 사실상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을 원리로 삼는 진화론을 인간사회와 도시적 전망에 바로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sup>38)</sup> 그래서 그의 도시론에서는 ‘개인의 자치’ 부분에서 미묘한 해석이 나타난다.

개인의 자치라는 것은 인류의 생활하는 개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자위적(自衛的)인 것으로 이것은 모두 본능의 작용에서 나온다. 그러하기에 그 **생물의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한 것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다. 이에 따라서 방위(防衛)하는 것이다.<sup>39)</sup>

고토는 진화론적 시각에 입각해 있기에 생물 간에 ‘계급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자치라는 본능적 행위도 차별이 생긴다고 얘기한다. 그가 대만에서 원주민의 오래된 관습을 조사하고 그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전개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식민주의와 식민지 경영관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고토는 식민지를 “세계적 조류인 ‘국민적 제국주의(國民的帝國主義)’를 통한 해외 발전 그 자체”라고 보았고 “넓은 의미에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위치 부여하였다. 고토는 대만의 경우 중국이라는 거대 문명의 일부였기에(즉 이미 “계급”이 부여되어 있기에 그 “계급”에 따라 일본과 동등하거나 내부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거대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으로 존재하면 되고 따라서 “헌법이라는 은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sup>40)</sup>

이러한 고토의 언설과 생물 본능상의 계급적 차이를 인정하는 진화론적

38) 이는 일본의 근대 위생제도 및 사상의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된다. 宝月理惠, 앞의 책, pp.285-287.

39) 後藤新平, 「都市計畫と自治の精神」, p.157. 강조는 인용자의 것임.

40) 고토의 발언은 春山明哲, 앞의 책, pp.238-239에서 재인용.

발상을 고려한다면, 고토가 일본 국가사적 입장에서 ‘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제국 일본의 역사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고토는 식민지 경영의 테크노크라트였고 이러한 경험을 일본 본토의 유력 정치가로 성장한 후 도쿄와 일본 도시의 개조를 위해 적용해 나갔으며, 이것이 그의 도시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3.2 인프라 중심적 사고

고토 신페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원칙과 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도시 및 도시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얼마간 이원적인 태도를 취한다. 고토는 도시계획의 ‘3대 요목(三大要目)’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러하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어떤 것이 선함이고 어떤 것이 악함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움이며 어떤 것이 추함인가. 이에 대한 판별력은 인류의 자치능력이 정신적인 힘으로서 발휘되는 가운데 생겨난다. 진선미(眞善美)가 도시계획의 일대요소이며, 이것이 여러 가지 계획 위에 정확히 실현되는 데는 삼세관통(三世貫通), 내외투철(内外透徹)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 삼세관통이란 과거, 현재, 장래의 개인이 각자 계승하는 힘이며, 내외투철의 원칙은 즉 우리의 3천년 역사에 흘러온 도시상주 생활, …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역사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삼세관통, 내외관철의 견지를 갖고서 도시계획에 임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 사이에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이리하여 도시의 미관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요컨대 이 3대 항목을 적당히 조화하여 역사적 관념을 갖고서 득실을 명확히 하고 장래를 위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sup>41)</sup>

이렇게 제시하는 3대 요목이 도시계획상에서 적절히 실현되는 것은 결국 “시설”, 즉 인프라 정비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명시적으로 자신의 글에서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가 취한 여러 도시계획들의 내용을 보면, 그는 도시계획에서 인프라 정비를 가장 우선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그는 도시란 인간 생활을 중심에 두고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도시계획에서는

41) 後藤新平, 「都市計畫と自治の精神」, p.158.

인간의 생활공간 조성과 인프라 정비를 분리하여 사고하며,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인프라 정비에 있었다. 그가 제시한 ‘8억 엔 계획’에는 도쿄의 도시개조를 위해 실현해야 할 16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원 및 광장 확충, 하천 개수, 시장 및 도살장 신설, 화장장 신설을 제외한 전부가 도시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다.<sup>42)</sup> 특히 가로 정비 및 확충 등과 관련된 항목이 3개 항목이며 이에 할당되는 예산이 전체 8억 엔의 정확히 반인 4억 엔이었다.<sup>43)</sup>

이렇게 고토가 인프라 정비를 중시하는 것은, 그가 도시계획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과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인프라 정비에 있는 반면, 도시민의 생활공간 조성은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44)</sup>

따라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고토의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이 “지역자치론”에 입각해 있기에 현대의 “도시 거버넌스론의 선구”였다고나<sup>45)</sup> 오늘날 일본에서 유행하는 시민 참가의 도시재생 활동인 “마치즈쿠리(町づくり)”와 맞닿아 있다<sup>46)</sup>는 식의 평가는 그다지 수긍하기 힘들다. 오히려 “정치가 인프라를 정비하고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맡긴다고 해도, 그 주민이 사적 이익으로만 기운다면 대체 누가 일본의 ‘마치(町)’의 향상을 맡을 것인가. 고토 신페이 이어서 지금에 이르는 일본의 현대도시계획의 고민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솔직한 평가가 더 납득이 간다.<sup>47)</sup> 요컨대, 인프라를 중시하는 고토의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은 결국 그도 근대도시의 기본적 틀, 즉 효율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두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고토가 의사 출신이라는 이력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생물학적이고 유기체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말이다.

무엇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토가 서구의 근대도시와 도시계획에

42) 後藤新平, 『東京市政要綱』, pp.194-195.

43) 越澤明, 앞의 책, p.195에 수록된 8억 엔 예산 견적서 도표 참조.

44) 藤森照信, 『後藤新平の公の視點』,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68.

45) 青山尙, 앞의 논문, pp.44-45.

46) 陳内秀信, 『後藤新平の「ウルバニズム」』,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56.

47) 藤森照信, 앞의 논문, pp.71-72.

서 크게 영향 받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가 보여준 대만과 만철의 식민지 경영과 도시 건설,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의 도시계획 운동과 여러 안들의 제시는 모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형성되는 서구 근대도시와 도시계획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물학적 원칙을 통해 나타나는 고토의 유기체적 도시론 역시도 기본적으로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진화론적 관점에서 있던 것으로 오늘날의 근대도시 극복을 위해 제시하는 유기체적 도시론과는 얼마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4. 결론

이상에서 ‘일본 근대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토 신페이(新井)의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을 일본 근대도시계획의 전개과정과 연동하여 살펴보고, 그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고토는 일본의 근대도시 형성과정과 일생을 같이 한 사람으로 1919년 도시계획법 제정과 1923년 이후의 진재부흥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다. 아울러 일본 최초의 식민지인 대만의 식민지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만주에 진출한 일본의 사실상 국가기관인 만철의 초대총재로서 만철의 만주 경영의 기초를 놓았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일본 근대도시 형성과정의 내밀한 성격을 우회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며, 또한 그로부터 형성된 일본 근대도시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토의 도시론과 도시계획은 무엇보다 생물학적 원칙과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사로서 이력을 시작한 고토의 특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대 도시계획의 입안자들에게서 보기 힘든 특징이다. 특히 일본 근대도시사가 시구개정기 이후부터 현대까지 국가 주도의 역사였다는 일반적 견해에 입각한다면 고토의 자치를 강조하고 생물학적 원칙에 입각해 주민 고유의 전통을 고려하여 살리는 도시계획의 강조는 일본 도시 전개의 대안적 전망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토의 이런 생물학적 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연 도태,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사고에 입각한 것으로 이런 진화론적 사고의 사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입은 필연적으로 식민주의적 사고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었다. 19세기 말 서구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그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진화론적 사고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렇다면 고토의 이런 생물학적 원칙 역시 식민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한다. 결국 그의 사고에서 보이는 인간 본능 상의 계급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그의 식민지 경영관으로 나타났고, 이는 대만에 대한 통치 정책상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바였다.

한편 이와 연관되어 고토가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3대 항목’, 즉 진선미, 삼세관통, 내외관찰이라는 원칙은 그 실현을 위해 도시 인프라 정비에 도시계획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고토는 도시계획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과 주민이 자치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고 인프라 정비를 정부의 일로 보았고, 그 자신은 바로 정부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고 시행한 모든 도시계획안은 기본적으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있었고, 도시 주민의 생활 공간 조성과 관련한 내용은 고려사항이나 예산 항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고토는 분명 생물학적 원칙과 자치의 원리에서 당대 도시계획 입안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효율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토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서구 경험의 영향, 진화론적 사고, 생물학적 원칙과 자치의 강조, 도시 인프라 정비의 강조 등은 일본 근대 도시계획의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본 근대도시의 성격 역시 이와 관련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919년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 법에 대한 면밀한 해석과, 아울러 고토 외 일본 근대도시계획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들의 도시론과 도시계획 사상에 대한 천착과 비교를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参考文献〉

- 고시자와 아키라(2006), 장준호 편역 『도쿄 도시계획 담론』, 구미서관, pp.1-14.
- 김백영(2006),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일본 근대 도시 형성과정의 이중적 경향」 『일본연구논총』 23, pp.407-449.
- 김백영(2006), 「식민지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공간사회학적 문제설정」 『사회와 역사』 72, pp.186-194.
- 김철수(2005), 『도시계획사』, 기문당, pp.13-24.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2), 『서양도시계획사』, pp.231-232.
- 鈴木信太郎(2007), 김영훈 옮김, 『도시계획의 종류』, p.12.
- 박삼현(2013), 「도쿄의 ‘제도(帝都)’ 부흥계획과 고토 심페이」, 박진한 외,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pp.24-51.
- 五十嵐卓(1986), 「滿洲經營機關問題と後藤新平 -滿鐵總裁時代を中心にして」 『學習院史學』 24, pp.24-39.
- 石田頼房(2004), 『日本近現代都市計畫の展開 1868-2003』, 自治體研究社, pp.1-140.
- 神山睦美(2007-2008), 「近代をどう超えるか -後藤新平の臺灣統治を手がかりに」 『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年報』 5, pp.16.
- 黃文雄(2001), 「後藤新平による臺灣近代化のための醫療教育觀」 『拓植大學百年史研究』 6, pp.46-58.
- 越澤明(2007), 「後藤新平と東京都市計畫」, 『2007年都市問題公開講座ブックレット 11』, pp.6-41.
- \_\_\_\_\_(2011), 『後藤新平』, 筑麻書房, pp.7-198.
- 後藤新平(1921), 「都市計畫と自治の情神」 『都市公論』 12-4,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2010),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pp.151-187.
- \_\_\_\_\_(1921), 「東京市政要綱」, 『都市公論』 4-6;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2010),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藤原書店, pp.191-200.
- \_\_\_\_\_(1923), 「帝都復興の議」,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2010),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藤原書店, pp.207-211.
- \_\_\_\_\_(1924), 「帝都復興とは何ぞや」, 後藤新平歿八十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編(2010), 『後藤新平とは何か- 自治·公共·共生·平和: 都市デザイン』, 藤原書店, pp.217-224.
- 鈴木丈晃(2011), 「都市計畫法」, 渡辺利夫·奥田進一 編, 『後藤新平の發想力』, 成文堂, pp.24-25.
- 永松榮(2008), 『都市と建築の近代』, 學藝出版社, pp.13-23.
- 羽貝正美(2007), 「震災復興と都市空間の近代化 -震災復興土地區畫整理を手がかりに」,



- 『都市問題』 98, pp.53-63.
- 春山明哲(2008), 『近代日本と台湾: 霧社事件・植民地統治政策の研究』, 藤原書店, pp.320-340.
- 藤森照信(2004), 『明治の東京計画』, 岩波書店, pp.1-316.
- 宝月理恵(2010), 『近代日本における衛生の展開と受容』, 東信堂, pp.84-89.
- 御廚貴編(2007), 『後藤新平大全』, 藤原書店, pp.79-272.
- 持田信樹(1983), 『後藤新平と復興事業 - ‘慢性不況’下の都市スペンディング』, 『社会科学研究』, 35-2, pp.1-60.
- 渡辺俊一(1993), 『「都市計画」の誕生 - 国際比較からみた日本近代都市計画』, 柏書房, pp.3-168.
- 渡辺利夫(2008), 『後藤新平の臺灣開發 - 日本の‘開發學’の原點』,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RIM』 29-8, pp.1-5.
- 王惠君・三村悟(2010), 『圖説 臺灣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pp.23-24.
- Matzerath, H.(1984), “Berlin, 1890-1940”, A. Sutcliffe (ed.), *Metropolis, 1890-1940*, London: Mansell, pp.289-318.
- Sorensen, André(2002), *The Making of Urban Japan*, Routledge, pp.1-10.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Goto Shinpei's Notion of the City as an organism  
and the Idea of Urban Planning**

Goto Shinpei is so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city in Japan that he has been called 'the father of Japanese modern urban planning'. This article is to examine his notion of the city and urban planning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urban planning in Japan, and understand their natures.

Above all, Goto's notion of city and urban planning was founded upon the biological rules and the principles of autonomy. While this greatly attributed to his career's uniqueness that his social life had begun with as a doctor, it was markedly distinguished from other modern urban planners who accentuated the efficiency and the functionality in their view of city.

However his biological rules were basically built on the evolutionist thought of natural selection, and so the unconditional substitution of it to society led to the colonialist thought logically. Consequently, his recognition of class distinction within the human nature had been laid out as his view of colonial management, as it was confirmed evidently in his government policies on Taiwan.

Also, Goto's urban planning w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as its implementation. In this respect, he had shared basically the design of modern urban planning that emphasized on the efficiency and the functionality as well, even though he showed the different features from his contemporary planners in his biological rules.